



헌재, 4일 尹 탄핵심판 선고

오전 11시 대심판정서... 방송 생중계 · 방청 허용
탄핵 인용될 경우 尹 파면... 6월 초 쫓 조기대선

헌법재판소는 오는 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대통령 탄핵심판의 높은 국민적 관심에 비춰 방송 생중계를 허용하기로 했다.

헌재는 1일 오전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선고기일에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허용된다고 전했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 박근혜 전 탄핵심판은 모두 방송 생중계가 허용된 바 있다.

헌재는 지난해 12월 14일 국회로부터 소추의결서를 접수한 이후 108일째 되는 날 선고기일을 공개했다. 4일 선고가 진행되면 111일만에 결론이 난다. 지난 2월 25일 변론 종료 후 종결한 이후 38일 만에 선고가 나오게 됐다.

노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의 경

우 변론 종결 이후 각각 14일, 11일이 걸렸다. 소추의결서가 헌재로 접수된 이후로는 63일, 91일이 걸려 선고가 진행됐다.

이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역대 최장 기간 심리, 최장 기간 평의를 진행한 대통령 탄핵 사건으로 남게 됐다.

헌재는 2차례 준비기일과 11차례 변론을 마무리한 뒤 재판관 평의를 열고 사건을 검토해왔다.

그간 재판관 평의가 길어지면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오는 18일까지 선고를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지만 이날 선고일을 지정했다.

국회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경을 투입해 권한을 정지시켜려 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했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은 국무위

원에 대한 연이은 탄핵과 예산 삭감으로 인해 경고성으로 실행한 것이라고 맞섰다. 또한 의원 끌어내거나 정치인 체포도 지지하지 않았다고 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는지 여부를 판단해 결정을 선고한다. 공직을 더 이상 수행하지 못할 정도로 중대한 위반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되면 탄핵을 인용한다.

반대로 이 같은 행위가 없었다고 보면 기각한다. 국회의 탄핵소추가 적법하지 못했다고 판단되면 탄핵을 각하할 수 있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할 경우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헌재가 파면을 결정하기 위해선 재판관 6인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각각·각하할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만약 윤 대통령이 파면될 경우 조기대선이 치러지게 된다.

4일을 기준으로 60일째가 되는 날은 6월 3일이다. 이날 이전에 선거가 열려야 하는 만큼 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 대선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뉴시스



1일 고창군립체육관에서 열린 제14회 수산인의 날 기념식에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심덕섭 고창군수, 노동진 한국수산업협연합회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수산에서 미래를’ ... 제14회 수산인의 날 행사

고창에서 개최... 전국 수산인 1500여명 모여, 유공자 93명 포상

전국 수산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수산업의 가치를 되새기고, 상생과 연대의 메시지를 나누는 ‘제14회 수산인의 날’ 기념행사가 1일 전북 고창군립체육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바다에서 희망을, 수산에서 미래를’을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수산업과 어촌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수산인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4월 1일은 지난 2012년부터 법정일로 지정되어 매년 ‘수산인의 날’로 기념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심덕섭 고창군수, 한국수산업협연합회

노동진 회장과 전국 각지의 수산인 등 1,50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기념식에서는 수산업과 어촌 발전에 이바지한 유공자 93명에게 포상이 수여됐고, 식전공연으로 군산 YMCA 소년소녀합창단이 무대에 올라 아름다운 선율로 감동을 전하며 분위기를 더욱 따뜻하게 만들었다.

행사장 외부에는 수산 정책과 전북 관광을 소개하는 다양한 홍보 부스가 설치됐고, 전북 수산물 공동브랜드 ‘해가람’ 부스도 함께 운영돼 지역 수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됐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과 어

촌경제 활성화로 어업인 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수산업은 국민의 밥상을 책임지는 생명 산업이자, 지역경제의 든든한 기반”이라며 “이번 기념행사를 계기로 수산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전북 수산업의 도약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창군은 전국 바지락 생산량의 50%(약2만톤)를 차지할 정도로 맨손어업의 성지로 알려져 있다. 또한 고창군 대표 식재료인 ‘품천장어’ 역시, 최첨단 양식 시스템과 다양한 요리법과 가공제품이 개발되어 수산인들이 고소득을 올리고 있다.

/이만호 기자 · 고창=김영식 기자

“함께라서 더 따뜻해요”... 정읍 산불 이재민 위한 기부 잇따라

정읍 필야정 · 남매안경원 상동점 등
지역 단체 ·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

정읍 소성면 산불 피해 이재민들을 위한 따뜻한 기부가 지역사회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다. 지역 단체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며 정을 나누는 진심 어린 행보가 감동을 더하고 있다.

정읍 필야정은 1일 금동마을 이재민들을 위해 성금 100만원을 기탁했다. 필야정은 정읍시 서부산업도로에 위치한 국공장으로, 43대 대표 안용화를 포함한 60명의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필야정 관계자는 “작은 정성이지만 마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것이 필야정의 중요한 가치”라고 전했다.

남매안경원 상동점(공동대표 박영만·박숙영) 또한 같은 날 성금 300만원을 기탁했다. 남매안경원은 2019년부터 성금과 물보기를 꾸준히 기탁하며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을 실천해왔고, 이번에도 그 따뜻한 마음을 이어갔다.

안경원 관계자는 “산불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과 상생하는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지난달 31일에는 정읍시 공무원 부부인 송민영·박숙영 팀장이 이재민을 위해 200만원을 전달했다.

송민영 팀장은 “화재 피해로 삶의

바란다”고 밝혔다. 박숙영 팀장 역시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나누고자 하는 마음에 기부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평소에도 두 사람은 꾸준한 봉사활동으로 지역사회에 따뜻한 영향을 전해왔다.

이학수 시장은 “시민들의 진심 어린 기부가 이재민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며 “이런 나눔이 우리 사회 전체로 퍼져 나가길 바란다”고 감사를 전했다.

한편, 소성면 금동마을은 최근 발생한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어 폐건물을 정리하고 생활 터전을 복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외부로부터의 도움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정읍시는 이재민들이 하루빨리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행정적·정서적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현장체험학습 보조인력 지원 ‘유치원’ 까지 확대

전북교육청 “학교 현장 목소리 담아 현장체험학습 안전 강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현장체험학습 보조인력 지원을 유치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1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운영을 위해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는 물론 유치원까지 포함한 조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는 2022년 강원도에서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학생 사망 사고와 관련해 지난 1월 인솔교사에 대한 형사책임을 인정하는 판결 이후 교사의 책임

부담과 학생 안전에 대한 학교 현장의 우려가 커지면서 보조인력 배치 등 안전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최근 도내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진행된 전수조사 결과 약 15%의 학교가 현장체험학습을 취소하거나 교육과정 일정을 변경한 현실도 고려했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오는 6월 21일 시행되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 현장체

험학습 시 인솔교사를 지원하는 보조인력의 배치 기준, 자격, 역할을 명확히 하고 이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 방안을 담은 예정이다.

특히 초·중·고·특수학교뿐만 아니라 유치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서 교육감은 “이번에 마련되는 조례를 통해 모든 학교의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교사의 부담은 덜고 학생의 안전은 확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장은성 기자



생태건강치유도시 진안

쾌적한 생태환경도시, 미래진안 건강도시, 자연치유 녹색도시, 생활 속 행복도시

